

바이두 Kunlunxin, 주요 테크 기업 시 칩 수주 본격화



Hana China Weekly | 2026.7.3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바이두(9888.HK): 쿤룬신 IPO 추진, 밸류에이션 500억달러에 달할 것

- 6/28 The Information이 바이두 산하 AI 칩 자회사 쿤룬신(Kunlunxin)이 홍콩 IPO를 추진 중이며 목표 밸류에이션이 50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주가 강세. 이번 보도에서 주목받은 것은 이례적인 IPO 조건으로, 투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 금액의 3~7배에 해당하는 칩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인수-구매 연동'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6/29 바이두 주가는 5.6% 상승 마감. 텐센트가 이미 쿤룬신 칩 고객사로 확보됐으며 바이트댄스도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앞서 6/15 로이터 보도에서 바이트댄스가 일루바타코어엑스와 추론용 AI 칩 조달을 협상 중이며, 동시에 쿤룬신 칩 채택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어 이번 보도로 재확인된 셈. 쿤룬신 자체 칩이 내부 사용을 넘어 텐센트-바이트댄스 등 경쟁사들에게까지 공급되며 중국 빅테크 간 AI 인프라 개방 구조가 가속화되는 점에 주목.

CATL(300750.CH): 장시성 이춘시 리튬광산 생산 재개, 하반기 4.5만톤 공급 전망

- 6/29 CATL은 핵심 리튬 광산 Jianxiawo 생산 재개, 올해 하반기 약 4.5만톤의 탄산리튬 공급이 추가될 전망. Jianxiawo 리튬 광산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0만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 8~10%를 차지하며, 이번 생산 재개는 리튬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CATL은 장시성 이춘시 Jianxiawo 리튬 광산의 채굴 허가가 2025년 8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8월 10일부터 광산 가동을 중단. 광산 가동 중단 이후 중국 탄산리튬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며,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리튬 산업에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 이후 CATL은 생산 재개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6/29 마지막 허가를 획득하면서 생산 재개가 가능해짐.

BYD(1211.HK): 두 번째 유럽 현지 공장 스페인 또는 프랑스 검토 중

- 7/1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YD는 기존 유럽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음. 이는 BYD의 유럽 시장 확대의 일환. 현재 후보지는 스페인과 프랑스이며, 올해 4분기 가동 예정인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생산거점이 될 전망. BYD의 유럽 판매량은 지난해 YoY +270% 증가해 약 18.8만대를 기록, 올해 1~5월 판매량도 10만 대를 넘어 YoY 두 배 이상 증가. BYD의 6월 전체 판매량은 YoY +6% 증가한 40.3만대 기록, 5월(YoY +0.3%)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 중국 국내 판매량은 YoY -22% 감소했으나, 해외 판매량은 YoY +95% 증가.

반도체

기가디바이스(603986.SH): 추가 단기 급등 리스크 공시

- 6/30 기가디바이스가 추가 거래 리스크 공시를 발표, 6/15~6/29 10거래일간 누적 추가 상승률 73.4%, 5/18~6/29 30거래일간 누적 125.6%에 달해 단기 급등에 따른 추가 급락 리스크를 경고. 기가디바이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주기적 변동성을 보여왔으며, 현재 제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해 추가 대폭 상승 추세는 지속 불가능하고 향후 수급은 결국 재균형될 것"이라고 명시.
- 6/27 글로벌 메모리 전문 액티브 ETF 'Roundhill Memory ETF(DRAM)'가 기가디바이스러 신규 편입, 편입 비중 2.91%로 ETF 내 8위 비중을 차지하며 DRAM ETF 사상 최초의 A주 종목으로 등극. 해당 ETF는 4/2 상장 이후 단 54거래일 만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단 기간 성장 기록을 세운 메모리 전문 액티브 ETF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가 합산 비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만 선별한 순수 테마 ETF. 글로벌 패시브·액티브 자금이 중국 DRAM 자립 밸류체인에 대한 공식적인 투자 검증을 부여한 첫 사례로 평가되며, 6/29 기가디바이스 A주는 +9.2% 상승 마감.

캠브리콘(688256.SH): 커칭반 시총 1위 등극 리스크 관련 공시 발표

- 6/30 장중 1,620위안까지 상승하며 시총이 1조위안을 돌파해 커칭반 개설 이래 최초의 1조위안 시총 기업으로 등극(A주 전체 시총 11위). 6/30 캠브리콘이 추가 급등 리스크 관련 공시를 발표. "추가 누적 상승폭이 커칭반 종합 지수, 상하이 종합 지수 등 주요 지수를 크게 상회하며 단기 급등에 따른 하락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 공시 기준 PER 369.0배/PBR 77.9배로 업종 평균(컴퓨터·통신·전자기기 제조업 PER 74.9배)의 약 5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이 명시됐으며,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 등재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도 동시에 언급. 리스크 공시 다음날인 7/1 추가 -6.91% 급락하며 시총이 1조 위안 아래로 후퇴. 이번주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심 약세를 야기.

반도체: 애플, 중국 DRAM 칩 조달 승인 준비 중

- 6/27 FT 보도에 따르면 애플(AAPL.US)이 한 달여 전부터 미국 상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CXMT DRAM 칩 조달 승인을 로비 중인 것으로 확인. 애플은 현재 CXMT 제품 구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는 아니나, CXMT가 펜타곤 1260H 리스트(중국 군사 연계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 평판 리스크가 존재. 더 큰 우려는 CXMT가 상무부 Entity List에 추가될 경우 미국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는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애플은 이에 대한 사전 보장을 요청 중. 6/29 CXMT 밸류체인(+8.6%)·반도체 장비(+5.7%)·반도체 전반(+3.4%)이 강세. 화싱테크놀로지(688120.SH)·몽타주테크놀로지(688008.SH)/AMEC(688012.SH) 등도 각각 20.0%/13.1%/10.6% 상승 마감.

바이두(9888.HK): 쿤룬신 IPO 추진, 밸류에이션 500억달러에 달할 것

- 6/28 The Information이 바이두 산하 AI 칩 자회사 쿤룬신이 홍콩 IPO를 추진 중이며 목표 밸류에이션이 50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추가 강세. 이번 보도에서 주목받은 것은 이례적인 IPO 조건으로, 투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 금액의 3~7배에 해당하는 칩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인수-구매 연동'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6/29 바이두 주가는 5.6% 상승 마감.
- 6/29 텐센트가 이미 쿤룬신 칩 고객사로 확보됐으며 바이트댄스도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앞서 6/15 로이터 보도에서 바이트댄스가 일루바타코어엑스와 추론용 AI 칩 조달을 협상 중이며, 동시에 쿤룬신 칩 채택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어 이번 보도로 재확인된 셈. 쿤룬신 자체 칩이 내부 사용을 넘어 텐센트·바이트댄스 등 경쟁사들까지 공급되며 중국 빅테크 간 AI 인프라 개방 구조가 가속화되는 점에 주목.

이차전지

CATL(300750.CH): 장시성 이춘시 리튬광산 생산 재개, 하반기 4.5만톤 공급 전망

- 6/29 CATL은 핵심 리튬 광산 Jianxiawo 생산 재개, 올해 하반기 약 4.5만톤의 탄산리튬 공급이 추가될 전망. Jianxiawo 리튬 광산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0만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 8~10%를 차지하며, 이번 생산 재개는 리튬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CATL은 장시성 이춘시 Jianxiawo 리튬 광산의 채굴 허가가 2025년 8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8월 10일부터 광산 가동을 중단. 광산 가동 중단 이후 중국 탄산리튬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며,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리튬 산업에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 이후 CATL은 생산 재개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6/29 마지막 허가를 획득하면서 생산 재개가 가능해짐.

이차전지: 중국 배터리 업체, 공급업체 대금 60일 내 지급 추진

- 6/29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맹(CABIA) 회원사들은 공급업체에 대한 거래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 가격 경쟁과 수요 둔화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품 공급업체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져옴. 지난해 중국 정부는 대기업이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번 캠페인에 맞춰 CATL, CALB, Sunwoda 등 회원사들도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에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이차전지 산업: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업화의 시작

- 최근 중국의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및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CATL은 2025년 4월 전기차용 나트륨이온 배터리 브랜드 'Naxtra'를 출시, 올해 1~2만 대의 전기차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 ESS 전문기업 HyperStrong과 3년간 총 60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 6월에는 나트륨이온 ESS 'TENER Sodium'을 공개. TENER Sodium은 올해 9월 중국에서 첫 출하를 시작해 2026년 말까지 누적 1GWh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출하는 2027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 BYD는 ESS를 중심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을 확대. BYD는 2025년 장쑤성 쉬저우시에 30GWh 규모의 생산기지를 건설 중.
-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최대 성장 시장은 ESS가 될 것으로 전망. ESS는 긴 사이클 수명과 높은 안전성, 우수한 저온 성능, 높은 출력 특성이 중요한 분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시장. 이에 따라 초기 상업화는 ESS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저가형 전기차, 자동차 시동 배터리, 전동이륜차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 2030년 글로벌 나트륨이온 배터리 설치 수요 약 406GWh에 이를 전망, 시장 침투율은 10%까지 상승할 것.
- 단기간 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 가장 큰 제약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낮은 에너지 밀도, 하드카본 음극재와 프러시안블루 양극재 등 핵심 소재 공급망도 아직 초기 단계. 또한 리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용 분야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전기차

전기차: 6월 BYD 판매량 YoY 플러스 성장 전환, 회복 강도는 제한적

- BYD: 39.7만대(YoY +5.2%, MoM +5.4%)로 5월 YoY flat에서 플러스 성장 전환되었으나 회복 강도는 제한적인 수준. MoM 증가세는 +5%로 5월 MoM +20% 대비 둔화. 해외 판매량은 17.5만대(YoY +94.7%)로 역대 최고치 기록하며 중국 국내 판매량(YoY -22%) 감소세 상쇄.
- 지리자동차: 15.9만대(YoY +29.8%, MoM +21.2%)로 5월(YoY -5%)역성장에서 크게 반등. 해외 판매량은 10.2만대로 YoY +157% 증가해 처음으로 10만대 돌파. 해외 판매가 중국 내수 시장의 부진을 상쇄하는 모습 지속.
- 샤오펑: 4.0만대(YoY +15.9%, MoM +24.8%)로 6개월만에 YoY 플러스 성장 전환. 부분 변경된 GX 프리미엄 SUV는 출시 후 첫 온전한 판매월인 6월에 6,739대 인도하며 판매량 견인.
- 샤오미: 3.0만대(YoY +20.0%, MoM +flat%)로 3개월 연속 월간 인도량 3만대 돌파. 5월 말 YU7 신규 모델 2종을 출시하며 공격적인 제품 확대 전략을 추진. 보급형 YU7 SUV 판매가는 23만위안, 고성능 YU7 GT 판매가는 39만위안. 가족용 EREV SUV 시장 타겟 브랜드 "Skynomad" 하반기 출시 예정.
- 리오토: 3.1만대(YoY -14.8%, MoM -7.2%)로 2개월 연속 YoY 역성장, 3개월 연속 MoM 역성장.
- 니오: 4.1만대(YoY +62.9%, MoM +7.7%)를 기록. 2Q26 누적 인도량은 10.8만대로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11만~11.5만대)에는 미치지 못함.

BYD(1211.HK): 폴란드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Greenvolt Power와 계약, 배터리 시스템 공급

- 7/1 BYD는 폴란드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Greenvolt Power와 ESS 공급 계약을 체결. BYD는 자사의 Haohan 배터리 시스템을 폴란드 시에들체(Siedlce) BESS 프로젝트에 공급할 예정. 시에들체 프로젝트는 600MW/2.4GWh 규모로 폴란드 최대이자 유럽 최대 규모 ESS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3Q26 착공 후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양사는 2025년 3월에도 투로시니 코시엘나와 노바 비에시 에우츠키 프로젝트에 각각 200MW/800MWh 규모의 배터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총 공급 규모는 1.6GWh.

BYD(1211.HK): 유럽 자동차 공장 인수 검토 중, 유럽 내 두 번째 생산 거점이 될 것

- 7/1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YD는 기존 유럽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음. 이는 BYD의 유럽 시장 확대의 일환. 현재 후보지는 스페인과 프랑스이며, 올해 4분기 가동 예정인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생산거점이 될 전망. BYD의 유럽 판매량은 지난해 YoY +270% 증가해 약 18.8만대를 기록, 올해 1~5월 판매량도 10만 대를 넘어 YoY 두 배 이상 증가. BYD의 6월 전체 판매량은 YoY +6% 증가한 40.3만대 기록, 5월(YoY +0.3%)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 중국 국내 판매량은 YoY -22% 감소했으나, 해외 판매량은 YoY +95% 증가.

BYD(1211.HK): 자체 개발 스마트 드라이빙 칩 Xuanji A3 탑재 발표

- 6/28 현지 언론은 BYD가 2027년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브랜드 Denza 차량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 드라이빙 칩 'Xuanji A3'를 처음 탑재할 계획이라고 보도. 지난 5/28 공개한 Xuanji A3는 중국 최초의 4nm 공정 기반 스마트 드라이빙 칩으로, 단일 칩 기준 700TOPS 이상의 연산 성능을 제공하며, 3개 칩을 병렬로 사용할 경우 총 2,100TOPS 이상의 성능으로 L3~L4 자율주행을 지원. 일반적으로 스마트 드라이빙 칩은 테이프아웃(Tape-out) 이후 양산 차량 적용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칩 검증뿐 아니라 알고리즘 개발, 차량 통합 및 기능 검증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함.
- 자체 칩 개발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AI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 Nio와 Xpeng은 자체 스마트 드라이빙 칩을 양산 차량에 적용하고 있으며, Li Auto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도 자체 칩 개발을 추진 중. BYD는 20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반도체 누적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000억 위안을 상회.

에너지

태양광/배터리: 미국 규제에도 중국산 태양광·배터리 수출 증가

- 6/28 SCMP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주요 배경. 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에너지 정책에도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의 대미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5월 중국의 태양광 셀 수출은 YoY +346% 증가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도 YoY +21% 증가. 글로벌 원유·천연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에너지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과 ESS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양광전력(300274.CH): 미국 규제 우려로 주가 급락

- 6/30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수입 제한을 방안을 올해 중 발표할 것으로 보도. 해당 소식으로 7/1 양광전력 주가는 -14% 급락.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대중 기술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 유럽도 지난 5월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인버터 사용을 제한한 바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 인버터 생산국으로, 양광전력과 화웨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방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왔음. 그러나 보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산 전력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실제로 로이터는 지난해 미국 전문가들이 전력망에 연결된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제품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인가 통신장치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AI/테크

AI: AI 지출 증가로 중국 저가 모델로의 전환 가속화

- 6/29 로이터에 따르면 AI 모델 토큰 단가는 하락 중이나 기업들의 실제 AI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저가 모델·오픈소스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 AI 기업들이 정책제에서 사용량 기반 종량제로 과금 방식을 전환하면서 작업당 비용이 예측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 우버는 AI 코딩 톨 도입 후 2026년 연간 AI 예산을 4개월 만에 소진했으며, BlueRock CEO는 "라이선스 모델 변경 직후 고객사들의 예산 초과가 20~30% 급증했다"고 언급. AI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AI 코딩 비용이 2028년 개발자 평균 연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기업들이 오픈소스·중국 저가 모델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시화. OpenRouter(AI 모델판 앱스토어)에서 오픈소스 모델의 토큰 처리 비중이 1월 34%에서 6월 65%로 급증했으며, 현재 OpenRouter 상위 4개 인기 모델이 모두 중국산. Citi에 따르면 중국 모델의 토큰 단가는 100만 개당 18센트로, 글로벌 상위 모델 평균(4달러)의 4% 수준. 다만 중국 모델의 보안 우려가 금융·사이버보안 등 민감 산업의 기업 채택을 제약하는 요인.

텐센트(0700.HK): AI 운영 에이전트 'Cloud Mate' 서비스 종료

- 6/30 텐센트 클라우드가 산하 AI 운영 에이전트 서비스 'Cloud Mate'를 2027년 8월 31일부로 서비스 종료한다고 공시. Cloud Mate는 2025년 9월 출시된 클라우드 인프라 진단·운영 자동화 전문 AI 에이전트로, DB 위험 SQL 탐지(차단율 95%)·자동 장애 진단(시간 단위 → 분 단위 단축)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으나 사업 조정을 이유로 약 14개월 만에 종료 결정.

화웨이(비상장): 경량화 LLM 모델 공식 오픈소스로 공개

- 6/30 920억 파라미터 규모의 경량화 모델 'openPangu-2.0-Flash'를 공식 오픈소스로 공개. 모델 가중치·기본 추론 코드·학습·추론 연산자 개발을 완료했으며, 고성능의 'openPangu-2.0-Pro'는 7월 중 공개 예정. 화웨이가 자체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첫 사례로, 국산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개방 전략으로 전환하는 행보에 주목.

딥시크(비상장): 대규모 채용 공고 공개

- 6/26 딥시크가 "모든 부서 규모를 최소 2배로 확대"하는 대규모 채용 공고를 발표, 풀스택 개발·알고리즘·AI 핵심 시스템 R&D·딥러닝 연구·모델 데이터 전략 등 7개 분야 33개 직군을 공개. 공고 발표 다음날 오후까지 이력서 1만 건 이상이 접수될 만큼 관심이 폭발적. 딥시크는 채용 철학으로 "천재를 찾지 않는다, 신입이 바로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원칙을 제시.

산업 인터넷: AI와 산업 인터넷 통합 로드맵 발표

- 7/1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가 산업 인터넷 고도화 로드맵을 공동 발표. 2030년까지 산업용 5G 프라이빗 네트워크 5만개 구축·산업 데이터 메커니즘 정비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향후 5년 내 산업 인터넷 부문 부가가치를 2.5조위안으로 확대할 방침. 이번 정책의 핵심은 AI와 산업 인터넷의 심층적 통합으로, 기존 정책이 주로 커넥티비티 구축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은 실제 제조 현장에서의 AI와 5G의 '통합 응용(integrated applications)'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차별화 포인트. 중국 정부가 제조업 AI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용 5G·산업 인터넷 플랫폼·AI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됨.

쿤룬테크(300418.SZ): AI Native 모델·제품 ARR 8억달러 상회

- 7/2 산하 천공 AI가 2Q26 AI Native 모델·제품 사업 전체 ARR이 8억달러를 상회했다고 발표하며 7/2 주가는 +12.2% 급등 마감. 이 중 AI 슷드라마 플랫폼 ARR이 7억달러, AI 톨 사업 ARR이 1억달러를 각각 돌파. 1월 4.8억달러에서 7월 7억달러로 6개월 만에 46% 성장하며 수익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흐름. 슷드라마 플랫폼 DramaWave의 신규 콘텐츠 중 AI 생성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며 AI Native 콘텐츠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

메이탄(3690.HK): 화웨이 HCCL 기반 AI 기초 모델 정식 발표

- 6/30 중국 대표 푸드딜리버리 기업 메이탄이 차세대 오픈소스화 AI 기초 모델 'LongCat-2.0'을 정식 발표하며 LLM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 MoE 아키텍처 기반으로 총 파라미터 1.6조 개(토큰당 평균 활성화 약 480억 개)이며 100만 토큰(1M) 초장문 컨텍스트를 지원. 메이탄은 이번 AI 모델이 전 세계 최초로 완전 국산 프로세서로 구성된 5만개 칩 클러스터에서 학습부터 구동까지 완료한 1조 파라미터급 AI 시스템이라고 주장. 엔비디아 없이 화웨이 HCCL 기반 인프라로 학습을 마쳤다는 점에 주목.
- 6/26 주주총회에서 CFO가 "현재 회사 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발언하며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식 예고. 왕싱 CEO도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부진해 깊이 책임을 느낀다"며 이례적인 공개 사과 발언을 내놓고 "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한 확장'에서 '선별적 투자'로 전략 기조 전환을 공식화.

즈푸AI(2513.HK): 신작 GLM-5.2, 제 2의 답시크로 평가

- 6/26 SCMP에 따르면 즈푸AI의 신작 GLM-5.2가 코딩 성능과 가성비 측면에서 글로벌 AI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제2의 답시크 모멘트'로 평가받고 있음. 메타 전 부사장 매트 벨로소가 X를 통해 "GLM-5.2를 하루 종일 사용했으며, 일상적인 코딩 작업에 쓸 수 있는 첫 번째 오픈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이 모델은 말이 많지 않고 빙빙 돌지 않으며 일을 바로 해낸다"고 평가.
- 7/2 즈푸AI가 GLM-5.2 기반 코딩 에이전트 하네스 'ZCode'를 출시하며 앤스로픽의 Claude Code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 ZCode는 LLM이 코딩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기존 구독자 데이터 쿼터 50% 확대·신규 ZCode 사용자 대상 500만 토큰 무료 제공 등 공격적인 개발자 유치 프로모션을 동시 시행. 출시 시점 측면에서 앤스로픽이 Claude Code 플랫폼에서 중국 사용자를 추적하는 숨겨진 코드가 발견돼 논란이 된 직후 출시한 점이 주목. 앤스로픽은 해당 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글로벌 개발자들의 미국 AI 플랫폼 신뢰에 타격. 즈푸AI 글로벌 운영 책임자 리즈쉬안은 X를 통해 '경쟁과 협력이 우리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언급하며 앤스로픽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개발자 수요를 흡수하려는 행보를 가속화 하는 흐름.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MWC 상하이, 로봇 승부차기 대회에 주목

- 휴머노이드 로봇 승부차기 대회가 MWC 상하이 2026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음. 이번 대회에는 중국 8개 임바디드 AI 팀이 참가해 약 100차례의 승부차기를 진행했으며, 1만 명 이상이 현장을 찾음. 기존 로봇 시연 행사와 달리 사람의 원격 조종과 사전 프로그래밍된 동작 시나리오를 모두 금지해 로봇의 자율 인식·판단·행동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우수한 China Mobile 팀은 시각 인식 오류와 균형 상실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여러 라운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가장 일관된 성능을 보임. 2위를 차지한 Tianshu Tanjie는 우수한 서보 제어와 동적 균형, 관절 구동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골킥퍼 성능을 선보였으며, 3위 Hangzhou Xingshu Intelligent Robot은 경쟁 제품 대비 약 30% 가벼운 경량 플랫폼을 바탕으로 높은 기동성을 입증. 경기력은 아직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대회의 핵심은 축구 실력이 아니라 비정형 환경에서 스스로 인식·판단·행동하는 휴머노이드의 AI 및 제어 성능을 검증하는 데 있다는 평가

휴머노이드 로봇: 엔비디아 로보틱스 직무 중국 채용 개시

- 6/30 엔비디아가 공식 워렛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서 10여 개 이상의 로보틱스 관련 직무를 채용한다고 밝힘. 채용 분야는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시뮬레이션, 구현(Implementation), 솔루션 등 4개 핵심 영역. 해당 소식이 확산되며 7/1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주 주가 강세 시현.

샤오핑(XPEV): 로보틱스 핵심 인력 이탈

- 6/30 보도에 따르면, 샤오핑 로보틱스 사업 책임자 미량찬이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연내 예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계획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량찬은 샤오핑 합류 전 약 15년간 엔비디아에서 근무하며 자율주행 분야 경험을 쌓았으며, 2021년 자율주행 부문 수석 디렉터로 샤오핑에 합류한 이후 2023년부터 로보틱스 사업을 총괄해옴. 이번 퇴사는 이달 초 제품 총괄인 스샤오신의 퇴사에 이어 한 달 사이 발생한 두 번째 핵심 로보틱스 임원의 이탈로, 조직 안정성과 양산 일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음.
- 샤오핑은 스마트 전기차 기업에서 Physical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 6/26 샤오핑은 로보틱스 센터에 9개의 2차 부서를 신설해 로봇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 허샤오핑 회장은 로보틱스센터를 직접 총괄하는 데 이어 제품부문장도 겸임했으며, 이달 초 사내 서한을 통해 로봇 사업의 'CEO'를 직접 맡아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음. 신설 조직에는 임바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임바디드 인텔리전스, 제어·안전 개발, 데이터 클로즈드 루프, 제품 매트릭스, 프로젝트 관리, 브랜드 마케팅 등 핵심 부서가 포함. 샤오핑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합해 양산 및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 한편 휴머노이드 산업은 지난해 연구개발 및 데모 중심에서 올해 생산설비 구축과 양산·납품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유비테크(9880.HK): 인가와 유사한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U1 정식 출시

- 7/1 유비테크는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U1 정식 출시. 이는 실제 사람과 유사한 실리콘 피부와 감정형 시를 탑재하며 가정 환경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됨. U1은 Lite/Pro/Ultra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11.9만부터 99만위안. 유비테크는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기본적으로 기기 내부에 저장되며, 클라우드 업로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 6/2 온라인 사전 예약 이후, 현재 약 1.1만대 주문을 확보한 상태이며 9/16부터 출하 예정.

유비테크(9880.HK): Walker S2 베트남 국경 검문소 배치

- 7/1 유비테크 Walker S2가 베트남과 접한 중국 광시성의 도시 팡청강의 국경 검문소에 배치됨. 지방정부는 약 4,000만USD 규모의 계약을 통해 유비테크 Walker S2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짐. 구체적 도입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초기 물량은 이미 순찰 업무에 투입. 중국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전국 인프라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해안 국경 지역은 높은 습도와 많은 먼지, 지속적인 사람과 차량 이동 등 환경이 열악. Walker S2가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경우, 상용화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향후 주요 공항, 국제 철도역, 항만에도 동일한 휴머노이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도봇(2432.HK): 인센티브 제도 위해 2억HKD 자사주 매입

- 6/25 도봇은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해 장내에서 최대 2억 홍콩달러 규모의 H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매입 주식은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에 활용될 예정. 회사는 현재 주가가 기업가치와 장기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번 매입이 인센티브 제도 추진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소비/헬스케어

팜마트(9992.HK): 신작 레트로 이발소, 중고 시장에서 정가 대비 싸게 거래 중

- 6/25 라부부 신작 '레트로 이발소' 시리즈 시크릿 박스(단품 159위안·6개 세트 954위안)를 온라인 발매하자마자 전량 품절을 기록했으나, 중고 시장에서 이례적인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 발매 30분 만에 일반 버전의 중고 시장 가격이 공식 발매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며 100위안대까지 추락, 과거 LABUBU 3.0 시리즈 당시 전 버전이 프리미엄 없이는 구하지도 못하던 것과 대조적인 흐름.

써니옵티컬(2382.HK):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인상, 수요 둔화 우려 증대

- 6/24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며 광학 시장 동향 및 기술 트렌드를 공유했으나,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스마트폰 완성품 업체들의 단기 출하 압박을 언급한 것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매도세 집중. 이에 더해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이 수요 둔화 우려로 작용하며 6/26 써니옵티컬 주가는 9.1% 하락 마감.

미니소(9896.HK, MNSO.US): 20억홍콩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 6/30 20억홍콩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는 반등. 6/30 미니소 주가는 3.4% 상승 마감. 미니소는 2025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왔으며 연초 이후 누적 매입 금액이 3~4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20억 홍콩달러 규모의 신규 계획은 기존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경영진의 주가 저평가 인식과 주주환원 의지를 강하게 시사.

헬스케어: 의료보험 약품 리스트 1차 심사 통과 명단 공개

- 6/29 국가의료보장국(NHSA)이 2026년 의료보험 약품 리스트 1차 심사 통과 의약품 557개 및 상업보험 신약 리스트 1차 심사 통과 54개 명단을 공시하며 섹터 투자 심리 개선. 이번 공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 기본 의료보험 리스트 1차 통과 557개 중 5년 내 신규 승인 신약이 343개로 신약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 둘째, 올해부터 신설된 상업보험 신약 리스트에 54개 신약이 동시 편입되며 의료보험+상업보험 투트랙 수익화 경로가 처음으로 가시화.

항공우주

우주: LandSpace 커창반 IPO 재개, 중국 상업 로켓 1호주 탄생 기대 점화

- LandSpace 커창반 IPO 재개로, 재무 자료 업데이트 기한(6/30) 만료를 앞두고 6/29 상하이거래소 IPO 심사 상태가 '문의 완료'로 회복되며 '중국 상업 로켓 1호주' 탄생 기대감이 재점화. LandSpace는 2025년 12월 31일 커창반 상장 신청이 수리됐으나 재무 자료 유효기간 만료로 3/31 심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번에 재무 자료를 보완 제출하며 정상 심사 궤도로 복귀. 모집 자금 75억 위안은 전액 재사용 로켓 생산능력 확대(27.7억 위안)·기술 고도화(47.3억 위안)에 투입 예정.
- LandSpace가 '주취에 3호'(朱雀三號) 재사용 로켓의 동평 상업항천 시험구에서의 정적 연소 시험 성공을 공식 발표. 정적 연소는 로켓 발사 직전 최종 단계의 지상 연소 시험으로 발사 준비 완료를 의미. 2025년 12월 주취에 3호 첫 비행에서 2단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1단 회수는 실패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사용 2호기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되며 '중국판 팰컨9' 기대감이 부각. 6/30 항천전기(002025.SZ), 해거통신(002465.SZ) 각각 6.2%/5.7% 상승 마감하며 우주 섹터 강세.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캠브리콘(688256.CH)	(5.9)	135.1	36.7	174.6	86.5	187.4	93.4	209.6	12.2	2026-08-07
해광정보(688041.CH)	(6.6)	160.6	17.7	52.1	40.8	74.0	54.7	84.1	(1.7)	2026-08-19
비렌테크(6082.HK)	(15.2)	-	1.9	127.6	258.1	적지	흑자	적지	(0.1)	2026-08-19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7.4)	-	(12.3)	167.8	117.6	적지	흑자	적지	(1.0)	2026-08-19
북방화창(002371.CH)	3.5	73.5	18.4	28.1	27.5	47.8	39.7	50.9	0.0	2026-08-25
AMEC(688012.CH)	(1.0)	112.2	13.1	33.5	34.2	60.8	42.0	110.4	1.6	2026-08-19
SMIC(0981.HK)	0.5	77.7	4.8	23.0	18.1	53.4	39.0	50.1	0.0	2026-08-07
JCET(600584.CH)	(4.9)	79.7	7.0	12.1	14.4	40.7	38.5	46.7	0.4	2026-08-20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2.8	88.9	23.7	36.5	44.4	59.3	47.3	62.1	0.0	2026-08-31
빅토리아이언트(300476.CH)	(4.2)	31.8	30.1	74.9	71.6	112.7	77.1	92.1	(4.0)	2026-08-26
중지취창(300308.CH)	(8.8)	46.7	61.0	148.3	68.3	177.8	71.8	154.0	1.7	2026-08-2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8.8)	21.5	30.8	63.1	33.2	74.1	32.9	70.9	(0.3)	2026-08-11
즈푸AI(2513.HK)	(14.3)	-	46.3	346.2	173.0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8-19
알리바바(BABA.US)	1.4	14.8	8.8	9.6	11.9	(11.8)	39.5	114.5	0.0	2026-08-28
텐센트(0700.HK)	4.5	12.3	19.3	10.3	9.4	6.5	10.9	27.5	0.0	2026-08-13
바이두(BIDU.US)	8.7	14.2	5.3	2.7	7.7	162.2	19.0	19.2	0.0	2026-08-20
레노버(0992.HK)	(6.1)	15.0	29.1	12.9	11.5	32.0	22.8	24.0	0.0	2026-08-13
샤오미(1810.HK)	5.5	17.1	10.4	5.2	16.9	(33.1)	34.7	(7.7)	0.0	2026-08-14
유비테크(9880.HK)	2.8	-	(4.8)	82.0	52.9	적지	흑자	적지	(7.1)	2026-08-31
BYD(1211.HK)	7.8	15.4	14.9	14.5	9.9	23.1	27.6	31.1	(0.7)	2026-08-14
CATL(300750.CH/3750.HK)	0.4	18.3	25.1	44.1	21.2	33.4	23.2	40.5	0.2	2026-07-30
양광전력(300274.CH)	(15.4)	17.2	26.8	15.9	18.5	11.3	22.5	19.6	0.0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5.7)	25.7	17.0	32.3	26.8	59.8	38.8	52.1	0.1	2026-08-28
허사이테크(HSAI.US)	16.1	30.0	6.4	44.3	39.5	26.3	63.9	30.7	2.4	2026-08-14
중천과기(600522.CH)	(15.8)	29.4	14.7	21.3	14.2	114.3	37.9	109.3	3.1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11.2)	28.2	23.8	33.0	30.6	39.4	36.9	38.6	0.0	2026-08-14
동방전기(600875.CH)	(2.0)	20.2	10.0	11.4	9.1	23.5	20.2	26.0	0.1	2026-08-28
평균	(2.9)	47.2	18.0	60.3	47.0	59.8	40.6	63.3	0.3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